

이재명 압도적 당선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4일 자정 기준 49% 확보
최종 절반 확보 초미의 관심
“국민들 위대한 결정에 경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불법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이번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관련기사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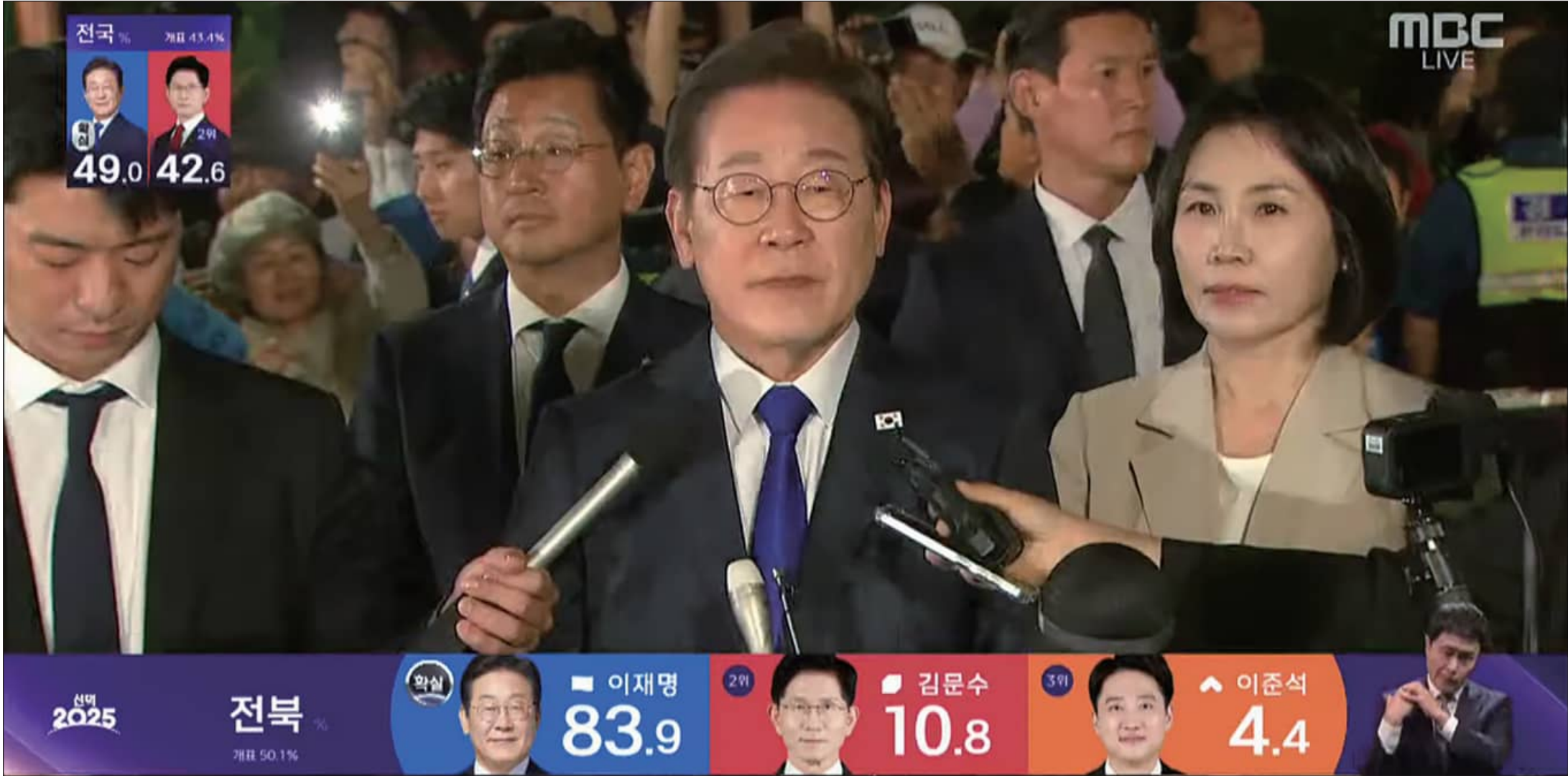
이 후보는 방송 3사의 당선 확실이 보도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S-MBC-SBS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이재명 후보는 개표 중반(42.98%) 48.99%의 득표율로 추격하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42.66%를 제치고 1위로 독주하고 있다.

개표방송을 중계해온 방송 3사는 이 같은 개표 조부터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표차가 커지자 개표 30% 초반에 ‘이재명 후보 당선 유력’으로 보도한데 이어 개표 40%를 넘어서면서 이 후보의 득표율이 49% 선에 육박하자 ‘당선 확실’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p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이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10% 내외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방송3사 출구조사가 예측했던 7% 내외인 7.3%의 한자릿수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개혁신당 존립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방송 3사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에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7%였다. 권영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4일 자정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인천 계양 자택서 나와 민주당사로 출발하기 전 첫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생중계영상 캡처>

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3%였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처럼 과반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과반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이 되며, 박 전 대통령의 득표율(51.55%)을 갱신할 경우, 이 부분에서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에서 10% 미만 득표율을 보이자,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대선 개표상황실에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준 개혁신당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선거 결과와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10% 미만으로 나올 경우,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록 기자

전주시, 탄소 ‘소부장’ 국산화 거점 구축

오늘수능 ‘6월모평’

‘미래혁신기반구축’ 최종 선정 180억 투입 탄소소재 자립 추진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탄소소재를 중심으로 한 미래혁신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내 탄소복합소재 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 ‘도심항공모빌리티용 습식 파우더 기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소재·부품 국산화 공정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기술이 부족한 ‘습식 파우더 기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소

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제조 공정, 성능 평가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항공우주·수소에너지·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탄소소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 총 180억 원(국비 100억, 지방비 34억, 민간 46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사업은 DYETEC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기관들은 △공정/제조 장비 13종 구축 △공정 데이터 기반 AI 적용 제조 디지털 기반 확보 △전주기 기술지원(설계-시제품-성능/내구성-신뢰성) 및 기업 활용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기반 구축을 통해 열가소성 탄소 소재의 산업 적용 확대 △전국 유일의 탄소소재 기반 지역으로서 프리프레그 중간재 제조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 △AI·디지털 기반 제조 인프라 확보 등에서 탄소소재산업의 커다란 도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내달 4일 도내 128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 7,472명이 응시한다. 재학생은 1만 5,876명, 졸업생은 1,596명이다.

6월 모의평가는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첫 공식 평가로 고3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다.

평가영역은 실제 수능과 동일한 6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성된다.

/최성민 기자

진안고원
JINAN GOWON

쉽과 치유가 있는 곳 -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선정

2025년 농촌 삶의 질 지수 전국 3위
문화·공동체 분야 첫 1위

NAVER 진안군 마이산

전북, 대선 투표율 82.5% 15대 이후 최고

전국17개 시도 중 4위 기록 순창군, 사전투표본투표 1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북은 8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전남, 세종시에 이은 4위를 기록했고, 순창군은 86.5%로 전국 시·군·구 중 사전투표율에 이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3일 저녁 9시 현재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선거 투표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투표율은 79.3%로 지난 20대 대선의 77.1%보다 2.2% 높았다.

시·도별 투표율은 광주시가 83.9%로 1위에 이어 전남은 83.6%로 2위, 세종시가 83.1%로 3위사전투표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던 대구시(25.6%)가 80.2%로 5위를 차지했으며, 울산시는 80.1%로 6위, 서울은 80%로 7위를

차지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74.6%를 보였다.

전북의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에서의 85.5% 이후 가장 높았다.

전북의 역대 대선 투표율은 지난 제16대 대선에서는 74.6%였으며, 전북출신 정동영 대선후보가 출마했던 제17대 대선에서는 67.2%로 가장 낮았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 시·군·구의 투표율은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한 순창군에 이어 진안군이 84.4%로 2위, 다음은 장수군(84%), 임실군(83.8%) 순이었고, 최저는 군산시(80.8%)였다.

사전투표에서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한 순창군(69.35%)은 지난 20대 대선투표율과 비교할 때 증감부분에서도 3.1%포인트가 늘어, 도내 15개 시·군·구 중 투표율 증감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순창군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율과 ▲투표율 ▲지난 대선대비 증감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이 전국투표율을 웃도는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의원 및 당원들의 '계엄과 탄핵'에서 비롯된 정권교체의 열기가 전 도민에게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도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등으로 독려했다.

실제 도내 국회의원들은 "계엄과 탄핵에도 불구하고, 내란세력들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면서 내란 종식을 위해 투표에 꼭 나서야 한다"면서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와 함께 호소해왔었다.

이와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계기로 자신의 선거구에서 지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기 때

시·군·구	제21대	제20대	증감
합계	82.5%	80.6%	1.9%
전주시완산구	82.7%	81%	1.7%
전주시덕진구	83.6%	81.5%	2.1%
군산시	80.8%	78.8%	2%
익산시	81.4%	79.1%	2.3%
정읍시	81.9%	80.2%	1.7%
남원시	83.1%	81.7%	1.4%
김제시	82.1%	80.3%	1.8%
완주군	83.5%	81.3%	2.2%
진안군	84.4%	83.5%	0.9%
무주군	83.2%	82%	1.2%
장수군	84%	83.8%	0.2%
임실군	83.8%	82.9%	0.9%
순창군	86.5%	83.4%	3.1%
고창군	83.5%	81.2%	2.3%
부안군	81.7%	80.6%	1.1%

[전북 시군구별 제21~20대 대선 투표율]

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도민 참여형 먹거리 정책 수립

16일까지 '먹거리 속의기구' 참가자 60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먹거리 정책 수립 체계 구축' 위한 도민 참여를 기다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북 먹거리 속의기구' 도민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전북 먹거리 속의기구'는 행정 주도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드는 전국 유일의 상설형 먹거리 정책 기구다.

도는 다양한 지역 의견과 현장 실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북형 먹거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신청 자격은 17세 이상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후, 먹거리 정책에 관한 도민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 연령, 직업,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총 60여 명 도민이 최종 선정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도민들은 6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5회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로 심층 토론한 뒤 정책 제안서를 공동 작성해 공식 회의체에 제출하게 된다.



이 제안서는 전북자치도의 공식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가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먹거리 속의기구'는 지난해 전북도의회와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같은 해 9월 열린 토론회를 거쳐 구체화 됐으며 올해 먹거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계획이 확정되면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속의기구는 행정이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설계하고 완성해가는 참여형 거버넌스의 출발점"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공간과 신뢰 기반의 먹거리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 새만금에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 개소

기술개발·맞춤형 인재 양성 에너지 특화 연구소 자리매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새만금에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는 에너지 분야 혁신 기술개발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주대학교가 설립한 부설 연구소다.

특히, 이 연구소는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성장 지원의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에너지산

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특화 연구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전북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다"며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대학교는 지역 에너지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북에너지융합연구소 설립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며, 우리 지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정재근 기자

6·10민주항쟁 전북기념식·도민문화제

9일, 풍남문광장서 개최

(사)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오는 9일 오후 6시30분 풍남문광장에서 '제38주년 6·10민주항쟁 전북기념식 및 도민문화제'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북기념행사는 '다시, 민주주의' 주제로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6·10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참여형 기념행사다.

농악판굿을 시작으로 전북기념식에 이어 문화제는 대북공연, 피리연주, 성악독창, 퍼포먼스, 소리중창, 시낭송, 노래같이 부르기, 중창단 노래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무대를 꾸민다.

기념식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무제선충병, 솔이흑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우화시기 등을 고려해 적기 방제할 예정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가용인력 총동원을 통해 산림·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제38주년 6·10민주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전북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행사위원회는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전북개헌운동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지역대학민주동맹협의회, 전북5월동지회,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전북대학교총학생회 등 160개 단체가 함께한다.

이번 기념식을 시작으로 일주일동안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행사는 다양하게 진행된다.

5·18민중항쟁 최초희생자 이세종열사의 송고한 저항과 죽음을 조망하는 전북민족민주열사 추모음악극 '누가 그를 죽였나!'-이세종 다시 살아나다 공연이 오는 12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7시에 진행된다.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새로운 민주정부 시대에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6·10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 기념계승사업과 전북지역 민족민주운동 기록화, 열사 추모사업, 민주시민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확대에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제4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김종범 센터장 취임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이끌어갈 제4대 센터장에 김종범씨가 취임했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인 윤동욱 부시장은 지난 2일 신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에 김종범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종범 신임 센터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산물 판로 확보에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 센터장은 전주의 소비시장을 고려한 농산물 생산·소비 체계 구축과 푸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농업인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업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김종범 신임 센터장은 지난 33년



간 농협에 재직하며, 전북본부 경영지원팀 차장과 전북산지유통단 단장 등을

/정재근 기자

서부산림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서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 설치·운영되며 소나무재선충병, 솔이흑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우화시기 등을 고려해 적기 방제할 예정이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가용인력 총동원을 통해 산림·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식중독 예방

4가지를 기억 하세요

- 손은 자주 씻고
- 물은 끓여 먹고
- 음식은 익혀 먹고
- 보관 온도는 지키고

식중독은 물과 불을 무서워 해요!

전주시, 문화산업진흥지구 밀그림 그리기

11월까지 지구 지정·조성 전략 활성화 방안 등 마련 문화산업 기반 확장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문화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밀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전주시는 지난 2일 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실에서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용역의 개요와 사업 목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조성 전략 마련 △활성화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관련 자치입법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해 전주시 문화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새롭게 구상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는 기존 지역에 더해 삼립동과 만성동까지 범위가 확대돼 영화·영상 관련 촬영·제작시설을 집중화하고, 문화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주시는 향후 중간보고와 부서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전주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한스타일·영상 관련 산업 중점 육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활성화가 미흡했던 지구를 재정비하고, '전주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과 전북특별법 특례를 연계한 범위 확대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전주시는 지난 2일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에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시가 문화산

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대장간’ 소공인·시민 상생 공간 자리매김

가공장비구축·인력 확보 뿌리산업 거점 플랫폼 성장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지역 뿌리산업 소공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구축한 '전주대장간'이 개소 1년만에 소공인과 시민이 찾는 상생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 내 영세 금속가공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설립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 구축장비를 활용하려는 지역 내 소공인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뿌리산업 거점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전주대장간에는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공인들을 위해 총 5건의 장비가 구축됐으며, 금속가공

소공인들은 이 첨단 장비를 활용해 생산성과 기술력을 높여 왔다.

특히 지난해 개소 이후 10개월 동안 총 3545건의 장비 이용을 지원하면서 지역 내 소공인들은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전주대장간을 찾아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 평가를 받았다.

전주대장간은 또 소공인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왔다.

구체적으로, 전주대장간은 시민들에게 금속가공 기술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판 액자와 무드등 제작 등 금속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10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대장간은 금속가공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



이고,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민과 소공인 간의 교류, 전통적인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등 기업과 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청년들의 잡담회’ 참가자 모집

우범기시장·청년 경제인 등 60여명 대학생과 소토

전북자치도 전주시역 대학생들이 멘토들과 함께 취업·창업을 주제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전주시역 대학생들과 멘토들이 취·창업을 주제로 소통하는 간담회인 '청춘살롱 청년들의 잡(Job)담회(이하 청춘살롱)'에 참가할 대학생들을 공개 모집한다.

'청춘살롱'은 진로,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주제로 대학생들과 멘토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90분간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열리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청년 경제인 등 20명이 멘토로 참여해 60여 명의 대학생과 만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청춘살롱'은 아이스브레이킹 퀴즈와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며, '내가 꿈꾸는 나의 직업, 전주에서의 삶'이라는 주



제로 진행되는 라운드 토크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3인의 멘토가 사전 접수된 질문과 현장의 고민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이후 브런치 살롱을 통해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 대상은 진로에 고민이 있는 전주시역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근 기자

부안 변산초 투표소, 무단침입 20대 남성 체포

“부정선거 의심 돼” 참관인 교체 요구

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이뤄진 3일 전북 부안 변산초등학교 투표소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참관인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2시 5분께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투표소에서 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바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갑자기 혼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을 참관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공직선거법 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경찰청, 홍보비 요구 ‘언론사 연합’ 검찰 송치

건설 현장 위법사항 기사화 협박 7개 언론사기자 12명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전북 지역 7개 언론사 기자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전원 송치했다.

이들 12명 기자들은 '언론사 연합'을 조직한 후 지난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지자체 발주 건설 현장의 폐기물 처

리 등 사소한 위법사항을 파악해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11월 협회를 구성해 홍보비를 요구한 기자들'이라는 기사가 언론보도 되면서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공사진행의 차질, 언론사와의 마찰로 인해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주지함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

었다.

하지만 형사기동대원들의 지속적인 설득에 의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이 밝혀졌다.

수사에서 피해자들은 건설 현장의 경미한 위법사실을 촬영·취재한 후, 여러 명이 함께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합동 취재하거나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할 것처럼 세력을 과시한 다음, 이에 겁먹은 공사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를 구증,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들을 포함한 대상자 전원에게 지난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공적 지위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악의적인 보도를 발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교통관리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통관리를 추진했다.

전북경찰청은 침수 취약 도로에 위험도에 따라 가, 나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도내 침수 취약 도로 총 99개소를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특히 기상 특보 모니터링을 통해 우천 시부터 침수 취약 지역 위주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 시 도로관리청에 통보 등 교통 비상근무 실시로 전체적 교통통제 등 교통안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올 6월은 평년보다 많은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일기 예보에 관심을 갖고 운행 중 침수 취약구간을 지날 때는 반드시 안전운전 해줄 것을 도민 여러분께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주덕진소방, 전기차 화재 실전 대응력 강화 특화 진압장비 추가 보강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최근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진압장비를 추가 보강하고, 실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장비 운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보강된 장비는 △이동식 소화수조 1세트 등 총 4점이다.

해당 장비는 전라북도 소방본부로부터 추가 배정된 것으로, 전기차 특유의 열폭주 현상과 유독가스 발생 등 기존 차

량 화재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해 도입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장비 수령 직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전형 대응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순 대응예방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화재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책임질 수 있도록 훈련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 '반부패·청렴 주의보' 2호 발령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공정·청렴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025-2호 반부패·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반부패·청렴주의보'는 부패·청렴 위한 요소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소속 직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청렴 알림 시스템'이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해서는 안 되며,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행위 △직위

를 이용해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인사청탁과 연계된 이권개입 등 부당행위 금지 등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공익신고 게시판도 운영 중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반부패·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여행자 짐 배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체류형 관광객의 수용 태세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원도심 소외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 짐 배달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짐 배달 서비스 '짐이 부탁하노라'는 전주역 및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전주한옥마을 인근의 원도심 숙박시설까지 여행객의 짐을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전주와 익산 등 교통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을 연

계한 여행객의 유입 확대에 따라 짐 보관 및 배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도입됐다.

무료 짐 배달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창에서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검색 후 네이버 플레이스의 예약 품을 통해 사전 및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는 교통 거점 시설인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에서 원도심·한옥마을·서해예술클마에 숙박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concierge2036(컨시어지2036)'을 통해 영업시간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문의하면 된다.

/정재근 기자

전북농협-김제쌀조공, 수도권 공략 ‘박차’

이지바이 통해 판로 확대 홍보용 쌀 500g 2천개 배포 김제쌀조공, 148억 납품 성과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장 이정용, 이하 김제쌀조공), 마트킹(대표 김희봉)과 함께 지난 30일 이지바이(easybuy) 봉담점에서 전북 쌀 판매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과 김제쌀조공, 마트킹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지리에서 이지바이 봉담점 개점을 축하하고, 수도권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쌀(500g) 2,000여개를 나눠주는 등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과 전북 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김제쌀조공이 공급하는 제품(제품명 ‘쌀쌀맛다’)은 신동진 단일품종으로 전북이 주산지로, 알이 굵고 수분함량이

낮아 윤기가 나며 찰진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쌀로서 수도권으로의 판로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2019년 1월 마트킹과의 거래를 시작, 현재까지 6,300여톤(148억 상당)을 공급했다. 또 이지바이 봉담점은 마트킹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지바이(easybuy)’라는 창고형 매장과 대형마트의 장점을 결합한 1,600평 규모의 소형 공간으로서, 수도권에서 전북 쌀의 판매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용 조합장은 “마트킹 이지바이 봉담점 개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201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제쌀조공의 쌀을 애용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마트킹과 수도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고품질의 쌀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 쌀의 수도



전북농협과 김제쌀조공은 지난달 30일 이지바이 봉담점에서 전북 쌀 판매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북농협>

권 판로확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준 수도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도권 쌀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구매층이 매우 다양한 만큼, 앞으로

도 우수한 전북 쌀이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 논의의 장

중간관리자 이상 확대회의서 경영·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다양한 시민 서비스 개선 및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에 나섰다. 공단은 2일 팀장급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확대회의(함계회의)를 통해 친절, 안전, 고객서비스 3가지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각 시설 책임자급(팀장) 공단 전체 중간관리자가 참여하는 함계회의는 고객 접점에서의 실질적 서비스 제공과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친절경영, 안전경영, 고객서비스 개선

이라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함계회의에서는 행락철을 맞아 급증할 예정되는 이용객 친절서비스 교육, 중대재해 제도를 목표로 한 안전다짐과 더불어, 각 시설별 시설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논의는 그 진행 과정을 추적, 관찰하고 매월 피드백함으로써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실제적 해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공단 비전인 ‘시민의 사랑과 신뢰 받는 혁신적인 공기업’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공단 전 임직원의 전 걸음이 시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2일 확대회의를 통해 친절·안전·고객서비스 세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전주시설공단>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최우수기관’ 영예

한국동물위생학회서 수상 기관상·발표상·학술상 3관왕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5년 ‘제47차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연구활동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상, 우수발표상 및 학술상을 수상했다. 최우수기관상은 2024년 학회지 및 학술활동이 많은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학술지 4회, 구두 1회, 포스터 5회 등 총 10회의 연구활동으로 학술위원 심사를 거쳐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국내 모돈과 멧돼지에서의 마이코박테리움 혈청학적 검출’로 우수발표상과 ‘도축장 출하 염소의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 감염실태 조사’에 관한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

뤼었다. 이번 제47차 한국동물위생학회에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및 전국 수의과대학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발표 16편, 포스터발표 65편 등 총 81편의 연구성과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정보를 나눴다. 이재욱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과 소통하며 우수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양질의 연구를 통해 도내 축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동물위생학회는 수의학분야의 학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2025년 ‘제47차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연구활동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상, 우수발표상 및 학술상 3관왕에 올랐다. <사진=전북도>

술연구와 학문교류를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 전국 17개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 850여 명의 회원으로 이뤄져 있다. /김영태 기자

최근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공중보건, 야생동물과 환경, 반려동물의 복지 등 연구 분야 확대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전, 전기안전 데이터 공유 협약 체결

한전·전력거래소 등 참여 민간분야 신사업 창출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데이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안심구역 공동 활용을 포함해 △에너지 공공공간 관련 데이터 개방 인프라 구축 △협업 데이터 생산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데이터 분석역량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으로 축

적한 데이터를 보안이 확보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기술교류 등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 분야 데이터를 포함한 융복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업체의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데이터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제공될 전기안전 데이터는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같은 공공데이터가 산업발전과 안전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하림이 지난 1일 부안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및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개장 3주년 맞이 행사에 다화용기 푸드트럭을 지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 <사진=하림>

하림, 새만금에 다화용기 푸드트럭…ESG 실천

새만금생태단지 3주년 행사서 ‘환경의 날’ 친환경 시식회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지난 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및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개장 3주년 맞이 행사에 다화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을 지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 이번 푸드트럭 지원은 국립공원공단의 환경 보전 노력에 동참하여 하림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난 2월 국립공원공단 및 전북지방환경청과 체결한 ‘ESG 활동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림은 이를 통해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생태단지의 가치 전달과 환경보전 노력 홍보에 기여했다.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및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개장 3주년 맞이 행사’는 지난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장, 공단 이사장, 전북도지사, 부안군수 등 주요 내빈 및 하림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야외무대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성악, 뮤지컬 넘버 커버, 퓨전국악, 극단 우주선의 환경

주제 정크아트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국립공원 이동탐방안내소를 비롯한 각종 체험부스, 전북 수질환경 캠페인, 국립공원 사진전, 동양화 및 조류 모형 전시 등 부대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하림은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 대표 인기 제품인 용가리치킨, 누룽지 순살치킨, 하림텐더스틱 등을 허니머스타드 소스와 함께 제공하는 ‘무료 시식회’를 진행해 현장을 찾은 약 2,000여명의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시식회는 환경의 날 행사의 의미를 살려 기념품으로 제공된 다화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고, 사용한 다화용기는 재활용하여 일상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쓰레기 없는 친환경 행사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하림의 ESG 경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하림 푸드트럭 외에도 부안군 소생공인 프리마켓, 다화용기 간식 이벤트, 찾아가는 놀이터 ‘노리카’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농업기술원, 딸기연구회 역량강화

딸기 육묘상 재배기술 등 공유 지역별 네트워킹 ‘소통의 장’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최근 전북딸기연구회 역량강화 교육을 연구회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량 딸기묘 생산을 위해 우량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생육관리와 자묘관리, 주요 생리장애 및 병해충 방제 등 실질적인 재배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 외에도 전북딸기연구회 정기총회를 통해 연구회에서 추진한 활동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함께 모

색했다. 또 지역별 영농상황 및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회원 간 소통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묘 생산을 위한 세부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실제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이었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윤대순 전북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전북딸기연구회원들이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해 핵심 재배기술 적용 및 전북 지역 딸기 경쟁력 향상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콩 안정생산, 초기 관리가 핵심”

초기 병해충 철저히 방제 파종 시기별 수확량 달라져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육 초기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철저한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이모작으로 콩을 재배할 경우, 파종 시기는 6월 하순이 알맞다. 일찍 심으면 식물체가 웃자라 생육 중기 이후에 쓰러질 수 있고, 늦게 심으면 꼬투리가 작게 형성되고 콩알이 작아져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재배지 안쪽에 배수로를 설치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고, 침수에 취약한 논

은 비 오기 3일 전 파종을 마친다. 가물면 입모음이 떨어지므로 심는 시기를 조정해 안정적인 생육을 확보한다. 파종 후 3일 이내에 토양처리 제초제를 이용해 잡초를 방제한다. 이후 화분과 잡초는 3~5일 시기 이내에 줄기와 잎(경엽)에 처리하는 제초제를 뿌리고, 그 밖의 잡초는 등록된 비선택적 제초제를 밭고랑(휴간)에 뿌려 방제한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콩에 등록된 살균제, 살충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올해 토양조사 최강자 가린다”

제11회 토양조사 경진대회 총 98명 토양조사 기량 겨루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 -한국토양비료학회가 주최하는 ‘제11회 토양조사 경진대회’가 지난달 31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토양조사 경진대회는 토양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모여 토양조사 기량을 겨루는 자리다. 올해는 28명 98명이 참가했다. 토양조사 경진대회에 앞서 토양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4월에는 이론교육 견학을, 5월에는 전주, 밀양 등지에서 2차례 실습을 진행했다. 경진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열

렸다. 참가자들이 토양의 층위, 토성, 토색, 구조, 공극, 지형, 토양분류, 작물 재배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판단해 순위를 가렸다. 단체전에서 농촌진흥청장상 최우수 1팀, 우수 1팀, 국립농업과학원장상 장려 3팀이 가려졌으며, 개인전에선 토양비료학회장상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 25일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개인전 입상자 4명은 2026년 6월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토양조사 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리박스쿨 늘봄 운영 초등학교 없다”

16개 학교 조사 결과 전무

민간 자격증 강사 등 추가 조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에는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 결과 극

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한 늘봄학교 업체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교육 단체로, 주로 우익 성향의 역사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초등학교와 계약

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모두 16개이며, 이 중 리박스쿨 관련 업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리박스쿨이 발급했다는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지침이 나오면 리박스쿨 관련 추가 업체나 민간자격증 소지 강사 등과 관련해

늘봄학교 세부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늘봄학교 운영 지침에 명시된 늘봄 프로그램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준수 원칙을 학교에 다시 한번 안내하고, 늘봄학교 업체·강사 자격 기준 및 검증 절차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 강연·전시·체험 ‘가득’

7·8일남부시장내문화공간장작당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이하 전주책페)가 다양한 강연과 전시, 체험, 이벤트로 풍성해진다. 전주책페는 ‘걸어다니는 서점’이라 불리며 전국 방방곡곡 책을 팔던 조선시대 서적중개상 ‘책패’에서 이름을 따온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책 축제이자 전국의 독립출판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책 박람회이다. 전주시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간장작당에서 열리는 ‘전주책페’에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출판사·책방 등 92팀이 참가해 다채로운 독립출판물과 더불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전주책페에서는 기존의 확일화된 형식에서 벗어나 차와 다과를 곁들인 차담회와 독립서점인 토크 등 5가지 다채로운 강연이 마련되고, 미디어를 활용한 참가팀 소개 전시와 올해의 주제 전시 등 행사의 정체성을 담은 기존에 없었던 전시 콘텐츠도 마련된다.



먼저 강연의 경우 △이태영 완판본연구자,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의 ‘완판본 살롱’(7일 오후 1시) △전주 동네책방 책방지기 4인의 ‘책방 모범도시 전주, 7년 이상 살아남은 책페들’(7일 오후 4시) △임주아 전주책페 총괄기획자의 ‘전주책페 어떻게 기획했나’(8일 오전 11시) △김지니 일러스트레이터·요호이 대표의 ‘좋아하는 일, 업이 될 때까지’(8일 오후 13시 30분) △김경현 작가·다시서점 대표의 ‘콘텐츠 시대,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8일

오후 16시) 등이 예정돼있다. 또한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92개 참가팀 대표도서 미디어 전시 ‘독립출판, 가장 빛날 자유’ △전주책페 기획의도를 담은 ‘책의 기수 책페가 온다’ △전주도서관 출판제작지원 사업 도서 전시 ‘벌써 10권, 전주책은 계속’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방문객을 맞이하게 된다. 문화공간장작당 야외마당에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벤트 프로그램인 △북판인쇄 체험을 할 수 있는 ‘책페는 내 손 안에’ △손깃발에 나만의

문장을 적어 포토존에 꽃아보는 ‘나의 아름다운 깃발’이 펼쳐진다. 또, 문화공간장작당 1층에 마련된 복합문화공간인 ‘모이장’은 역대 전주책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다용도 쉼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책페에는 13개의 후원사가 함께하며, 이들이 후원한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전시공간 연출과 홍보용 현수기 제작, 행사 체험 및 이벤트, 참가팀 편의를 위한 간식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정재근 기자



전북학생의회-지역학생의회, 투표 참여 캠페인

“한표 소중함 직접 알리고 싶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이하 전북학생의회)와 14개 지역학생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학생 유권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도내 각 시군에서 선거일을 상징하는 오후 6시 3분에 맞춰 진행된 이 캠페인에는 이틀간 전북학생의원, 지역학생의원, 일반학생 등 19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전주(월드컵경기장, 한옥마을) △군산(대형마트 앞) △김제(창의예술 미래공간 ‘다움’) △익산(익산역) △정읍(중앙로) △남원(광한루원) △완주(둔산공원) △진안(군청) △장수(장천로) △임실(시장) △순창(중앙도로무대) △고창(군청, 터미널) △부안(교육지원청 부근) 등 시군 주요 변화가에 이

뤄졌다. 이 캠페인은 전북학생의회와 지역학생의회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캠페인에서 사용한 피켓은 ESG 가치 실천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폐박스를 재활용해 직접 제작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도 함께 일었다. 호남제일고 강현우 학생은 “버려진 박스를 피켓으로 손수 만들며, 투표뿐 아니라 환경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세대가 바꾸고 싶은 사회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수호 전북학생의장은 “아직 투표권이 없는 학생도 있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 한표의 소중함을 직접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조원정 개인전 ‘나비야 나비야, 전북도립미술관서 개최

5일~15일 전시관람료 무료

서양화가 조원정의 ‘나비야 나비야’ 전시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에서 열린다. 조원정(1962~) 작가의 주된 작품 주제는 자연의 평안과 아름다움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봄날 나비의 몸짓에서 영감을 받아 평범한 자연세계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로운 찰나의 순간을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재현한다. 최근 이어오고 있는 ‘Garden’시리즈의 일환으로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생명력과 조화로우음을 내포한 자연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자 했다. 작가는 “자연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소망하는 자연을 현실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자연의 소중함과



인류의 평안이 위협 받고 있는 오늘날, 자연이 주는 만족과 자유로움을 관람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전한다. 전시기간 중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람료는 무료다.

/정재근 기자

도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 내실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6일까지 도내 8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학교에 자율성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부여해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 교육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교 지원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양현고, 전주고, 전주술내고, 전주여고, 진안제일고, 군산동고, 김제여고, 순창제일고 등 8개 학교에서 운영중이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기관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컨설팅 영역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약의 적절성 △교장공모 및 교원 초빙 계획의 적합성 △연구학교 운영 주제 △협약기관 등과 연계한 교원 연수 및 능력개발 계획 △자율형 공립고 20 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 등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6월 1주차 상영프로그램

‘신성한 나무의 씨앗’ 등

전주영화제작소 4층에 위치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6월 1주차 신작으로 〈신성한 나무의 씨앗〉, 〈브레이킹 아이스〉 등 총 2편을 개봉, 상영한다.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대규모 히잡 반대 시위가 시작된 테헤란, 권력 안에 속한 수사관사 ‘이만’과 그 밖에 있는 아내와 두 딸 사이에 생긴 균열을 그린 가장 용감한 서스펜스 스릴러로 이란의 거장 모함마드 라슬로프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브레이킹 아이스〉는 주저하는 사이 어른이 되어 버린 나나, 하오펑, 사오세 사람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들이 부딪히며 시작되는 꿈 같은 변화를 그린 청춘 영화이다. 눈 덮인 산의 그림자 속에 두 가지 언어와 문화가 뒤섞여 있는 북한과 접경한 도시인 연길을 배경으로 한다. 오는 7일 개봉작으로 〈신성한 나무의 씨앗〉, 〈브레이킹 아이스〉가 개봉, 상영되며 이외에 추가 개봉될 작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JBT

전북타임스신문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타임스신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사랑 · 자연보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 기한 : 2025년 5월 27일(화)~6월 20일(금)

▶참가 대상 : 전북자치도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생

▶작품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

▶공모 부분 : 그림(만화 포함)

▶용지 구격 : 8절지 크기(B4 용지)

▶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학교별 단체 및 개별 접수)

▶접수처 :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5층

전북타임스 본사, 문의 (063)282-9601, 9604

▶입상자 발표 : 2025년 7월 11일(금)

▶입상자 시상 : 2025년 9월 13일(토)

♣ 시상 내역 ♣

대상(3명)=전북자치도교육감상·전북자치도지사상·전북자치도의회회장

최우수상(4명)=전주시시장상(2명)·전주시의회의장(2명)

우수상(20명)=(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 장려상(50명)=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 특별상(3명)=국회의원상



밤길 더욱 밝고 안전하게 익산시,보안등 추가 설치

익산시가 보안등 설치로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투입해 120곳에 LED 보안등을 신규 설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의해 선정된 장소이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보안등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LED 보안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점멸시간 자동화가 가능한 GPS방식의 점멸기를 채택해 시간 오차를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보안등 설치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돼 우범지대 해소와 밤길 통행 편의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주택 밀집 지역 등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보안등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익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장애 자녀 부모 대상 ‘자녀 생애주기별 성교육’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자녀 생애주기별 성교육’을 오는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자녀 생애주기별 성교육’은 2025년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군산시 장애인 부모 15명이며, 기간은 6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누리집(<http://www.gdfamily.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내장산 그란폰도메디오폰도 전국 자전거대회 성황

지난 1일 정읍시 내장산 일원에서 2025년 정읍내장산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전국 자전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자전거연맹(회장 이승룡)이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1,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는 그란폰도(139km), 메디오폰도(96km) 두 종목으로 운영됐으며, 내장산위터파크에서 출발해 정읍 천변로, 정읍사로, 내장산터널 등 을 지나 내장산과 옥정호의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정읍시, 순창군, 임실군 일원을 경유하고 다시 내장산위터파크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참가선수들은 자전거를 타며 정읍 내장산의 자연 풍경 속에서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고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같은 길을 달려 완주의 기쁨을 나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 매력 담은 ‘3미·6품·9경’ 선정

대표 음식·특산품·관광지 문화적 정체성 확립 등 기여

정읍시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선정된 대표 음식·특산품·관광지를 담은 ‘정읍보물 369’ 브랜드를 최종 확정했다.

정읍시는 지난달 30일 정읍관광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 정읍의 대표 음식 3미(味), 특산품 6품(品), 관광명소 9경(景)을 최종 선정했다.

정읍의 대표음식 3미(味)는 정읍 쌍화차, 정읍 한우, 내장산 산채비빔밥을 선정했으며 대표특산품 6품(品)은 정읍 귀리, 정읍 씨없는 수박, 정읍지황, 정읍 막걸리, 청명주, 정읍 자생차를 선정했다.

정읍의 대표음식 3미(味)는 정읍 쌍화차, 정읍 한우, 내장산 산채비빔밥을 선정했으며 대표특산품 6품(品)은 정읍 귀리, 정읍 씨없는 수박, 정읍지황, 정읍 막걸리, 청명주, 정읍 자생차를 선정했다.

정읍보물 선정은 지난 1~2월 시민 제안 공모로 접수된 1500여 건의 후보를



대표관광명소 9경(景)

<사진=정읍시>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1차로 ‘10미, 18품, 21경’을 선정하고 다시 전국적인 오프라인·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총 6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후보군(6미, 10품, 15경)을 추렸다.

이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읍보물 3미·6품·9경이 결정됐다.

이날 확정된 3미·6품·9경을 재정비해 정읍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다는 계획이다. 이는 관광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의 음식과 특산품, 관광자원을 활용해 정읍다움을 표현하고, 이 소중한 자원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관광콘텐츠로 체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읍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지역 드림패럴림픽’ 연속 선정

장애인체육 선도시 자리매김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드림패럴림픽’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장애인체육 선도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3개소가 선정됐으며,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익산시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사업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 드림패럴림픽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스포츠를 경험하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포용과 공감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익산반다비체

육센터의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전문강사들을 배치해 참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지속 확대해, 시민 누구나 체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2년 차 사업 본격화

올해 8억 투입 갑오징어 브랜드화

군산시가 오는 2028년까지 육도면 해역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나서 수산자원 증대와 어민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으로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다. 시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년차 사업에서는 갑오징어 은신처 및 알 산란장 제공을 목적으로 산란시설물(갑오징어 통발) 900개를 비안도, 방축도, 연도 해역에 각각 300개씩 설치했다.

이는 갑오징어가 4~6월(15~20℃)에 수심 2~10m 이내의 연안에서 암반, 해조류, 해초, 해저 구조물 등 부착기질에 알을 붙여 산란하는 습성에 착안한 것이다.

방축도 어촌계에서도 인공 해조장(2mx2m) 10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산란장 난 부착물의 비교분석과 부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산란율을 높이는 등 조성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된 갑오징어 홍보 캐릭터 ‘갑토리’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귀엽고 친근함이 돋보이는 캐릭터 ‘갑토리’는 앞으로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 브랜드 인지도 상승 △

시민과의 활발한 정서적 소통 △갑오징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등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를 대비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캐릭터를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 독점을 위해 디자인·상표 출원도 진행했다.

이런 다각도의 사업을 통해 시는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어종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갑토리’ 활동 홍보물 제작 △각종 축제 등에 홍보·판매 부스 등도 추진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농업 데이터 기반 정밀 농업기술 도입

과학영농 통합관계체계 구축 맞춤형 컨설팅 제공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기술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4억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계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의 농업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작물생육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각 농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작물별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대상 작물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채소다. 이들 작물의 재배 환경에서 온도·습도, 토양의 온도와 수분 상태, 전기전도도(EC), 배지의 무게, 공급되는 물의 양과 배수량, 일사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맞춤형 작물 생육 모델을 구축하고 각 농가별 환경제어 시스템에 반영돼 활용된다.

예를 들어, 여름철 고온 발생 시 자동으로 차광막이나 포그분무기를 가동하고, 토양 내 양분 농도 변화에 따라 비료 투입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등 작

물별 맞춤형 스마트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으로 전송돼 작물별 농업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이는 작물별 생육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 농가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한국형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는 관계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플랫폼 구축과 함께 시범적인 운영을 위해 15개 농가에 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현충일 연휴, 익산에서 역사속 시간 여행

익산 근대역사 문화축제

익산시가 현충일을 맞아 근현대 역사를 문화예술로 풀어낸 참여형 행사를 준비했다.

익산시는 오는 6~7일 이틀 동안 ‘2025 익산 근대역사 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승리문화극고,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일원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2025 익산 근대역사 문화축전은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열리며, 익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등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이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기획했다.

추진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완성도, 안전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역사 속 익산 시간 여행’이다. 1910년대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역사적 기억을 골목과 무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여행형 콘텐츠로 채워진다.

익산의 근현대 문화자원이 다시 조명되고, 시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역사적 자긍심을 함께 체험하고 알리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1회 추경 1조 9천억 원 편성

본예산 대비 918억 원 증액

익산시가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1조 9,026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2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인 1조 8,108억 원보다 918억 원(5.1%) 증액된 1조 9,026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810억 원(4.9%) 늘어난 1조 7,34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원(6.9%) 증가한 1,683억 원이다.

시는 장기화하는 경기 불황에 따른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해 민생 안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실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54억 원 △구시장 지중화 사업 12억 원 △전북 익산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9억 원 △소상공인 특별보증(희망더디리) 지원사업 5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을 지원하고 유능한 복지 혜택을 위해 △모아복합센터 건립 48억 원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7억 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 4억 원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3억 원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8억 원 등을 반영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됐다. 시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0억 원 △왕궁에덴프로젝트 기본 구상 8.5억 원 △수소버스 보급 5.4억 원 △점수방치 차수판 설치지원사업 1.6억 원 등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집중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농산물 통합마케팅 ‘A등급’ 쾌거

인센티브 6200만원 확보

통합마케팅의 정석을 보여준 정읍 단품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 이하 정읍조공)이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A등급을 받아 도비 인센티브까지 확보했다.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정읍조공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말 기준 통합마케팅 운영 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비 인센티브 6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거

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16개 통합마케팅 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13개소, 품목광역조직 3개소)을 대상으로 출하율, 조직화 참여도, 매출 성과, 농가 환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정읍조공은 지난해 한 해 동안 244억원의 매출과 8909톤의 출하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예산을 농산물 상품화, 공동출하 지원, 유통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시민 평생학습기회 확대

군산시가 ‘2025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관내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방법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발표는 6월 16일 예정이며, 선정자

에게는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고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이용금액 35만 원이 제공되며, 이용은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NH농협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순창군, 전북대와 미래먹거리 개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RISE 공동연구기관 참여 미래식량문제 대비 연구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JB푸드테크연구센터'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전북대와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 및 산업화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JB푸드테크연구센터' 사업은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광표 교수 연구팀

이 주관하며, 향후 5년간 전북 도내 미생물식품 기업, 특히 순창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펼치게 된다. 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미생물 자원 수집과 분석, 데이터베이스(Library) 구축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진흥원은 전북대학교가 지역의 대학과 기관들이 협력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북대-지역기관 학연공동연구사업'에도 참여한다.

진흥원이 제안한 '바이오매스 고영양 소재 산업화를 위한 RNA 저감과 세포 분해 기술 개발'과제가 채택됐으며, 해당 과제는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백상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순창군과 발효미생물산업진

흥원은 '100년 미래 먹거리, 먹는미생물 증가 육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국내에서 자생하는 우수한 토착 미생물을 체계적으로 자원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5만 주 이상의 미생물 균주를 확보해 보존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식량문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 국제적 식량 안보 위기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창군은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면적으로 고기능 영양식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도시형 식량 생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먹는미생물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2년 연속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분야 국제 평가에서 '우수'평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잔류농약 분석 국제 평가 '우수'

영국 환경부 주관 비교속련도 전 항목 기준 충족 우수 입증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2년 연속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분야 국제 평가에서 '우수'평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FAPAS)로, 세계 각국의 분석기관들이 동일한 시료를 분석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잔류농약 분석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 중 하나로,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평가 방식은 주관기관이 같은

시료를 전 세계 참가 기관에 제공하고, 각 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면 표준점수(z-score)를 기준으로 분석 능력을 판정하는 구조다. 이 점수가 ±2.0 이내일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올해는 전 세계 49개 기관이 참여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총 13개 성분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고,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해 '우수' 평정을 받았다.

센터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통해 매년 약 1,200건에 달하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동부권, 학교복합공간 조성 본격화

남원시-남원교육지원청, 복합시설 건립 추진 협약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달 30일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수)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역과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양 기관 협력의 틀을 공식화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 수요와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 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활력타운 예정지 내에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은 미래교육실, 놀봄센터, 스터디카페, 실내체육관 등으로 구성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남원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남원시>

되며,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육 공간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이 공존하는 '함께 쓰고 함께 누리는 열린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달 22일 실시설계용역(종합건축사사무소위아)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고, 이날 협약을 통해 시설 건립에서 운영까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절차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학교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지리산 활력타운, 고향올레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동부권을 교육과 정주,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7월 개소 준비 '착착'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성과 운동·체형·상담 복합건강공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오는 7월 개소 예정으로 현재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5%에 달하며, 개소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센터는 동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건강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는 체력단련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주민참여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지며, 보건 전문 인력이 상주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

이다.

또한 남원시는 센터 운영 준비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강 관련 요구도 조사로 시민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울러 타 지역 우수 사례 검토와 전문 인력 채용 등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센터 개소와 함께 전 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예방 △비만관리 △한방기공체조 △슬로우조깅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관리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중심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창업보육센터, 창업스쿨 교육생 모집

생성형 AI 활용 실습 교육 기획·마케팅 역량 강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관내 예비창업가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업 기획, 홍보, 마케팅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7월 3일

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진행되며, 총 6회 과정 중 5회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쉽게 이해하는 창업 지원 사업 △생성형 AI 활용 창업 아이템 발굴 △창업 성공사례 분석과 차별화 전략 △생성형 AI 활용 사업 계획서 작성 △생성형 AI 활용 브랜딩 & 스토리텔링 △고객을 사로잡는 AI 기반 마케팅으로 구성됐다.

모집 기간은 16일까지이며,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버스 회차지 조성 의료접근성 향상

남원의료원 버스 경유 증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원의료원 인근에 시내버스 회차지를 새롭게 조성했다.

우선 이번 회차지 조성으로 버스 경유 횟수가 크게 증가, 일 평균 편도 85회, 왕복 170회에 달하는 시내버스가 의료원을 경유하게 돼, 많은 시민들이 의료원 방문 시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됐다.

또한 의료원 제3주차장 부근에 스타트승강장이 설치되어 의료원까지의 이동거리가 크게 단축됨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승강장 내 냉·난방이 가능해, 교통약자들에게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 겨울에는 한파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고산 천주교 유적, 범국가적 유산”

천주교 역사심포지엄 개최 고산 교우촌 유산 등재 박차

천주교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군에서 '고산 교우촌이 한국 천주교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또 한 번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달 29일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주가톨릭순교현양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이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권오안 도의원, 군의원, 김선태 주교 등 관계 전문가와 주민 18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와 저구리 공동체'를 발표한 김두현 박사는 "한국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의 동생으로 신해박해 후 자신의 가족과 진산공동체를 이끌고 대둔산 아래 고산현으로 이주해 한약방을 운영하며 고산지역 교우촌을 확장시켜 나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호남 천주교의 핵심인물이었던



지난달 29일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주가톨릭순교현양원 주최 '고산 교우촌이 한국천주교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완주군>

조남이성자 유랑감이 윤지현의 사촌으로 박해시기에 완주지역으로 이주해 한국 천주교회 설립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전북대 최진성 교수는 대둔산·천호산 일대 고산지역이 평신도 중심 교우촌으로 발전해 지역문화 유산이 됐다고 밝혔으며, 전병구 위원은 교우촌 형성과 순교사 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영농정책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완주군은 조남이성자에서 발굴된 한국 최초 순교자 윤지충과 권선연, 윤지현의 유해와 유적을 국가지정 사적화 등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부각된 고산 교우촌의 천주교 유적지의 가치를 집중 재조명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기관 선정

전북 최초 공공 산후조리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달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기관으로 남원의료원을 선정했다.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실시해

기관의 전문성, 재정 상태, 사업 수행 능력 및 안전관리 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남원의료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위탁기관으로 결정됐다.

시는 출산율 감소와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불편을 겪는 산모들에게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 공약 사업으로 전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했다.

남원시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의료원과 6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개원을 목표로 홈페이지 구축 및 인력 채용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온누리살이협동조합 청소년 사진·드로잉 진로교육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주관하는 '성림성림 꿈자람 프로젝트' 2025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고산 동우 사진관(고산로 147-9 상가 201호)'에서 오는 10월까지 '청소년 주도 예술로(路)' 인턴십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 주도 예술로(路)' 인턴십 프로젝트는 고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술분야로의 진로를 제대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와 결합해 체계적인 이론교육은 물론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고산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8명의 학생들이 매 주 수요일마다 '고산 동우 사진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함께 드로잉반, 사진반으로 나누어 분야별 기초 이론교육과 장비 활용교육, 작품 및 크즈 제작, 통합 전시회 개최 등 예술분야로의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지역에서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는 진로교육, 직업체험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2014년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해 지금까지 관련 활동을 실천해 왔다.

한편 '성림성림 꿈자람 프로젝트'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주관하며, 농어촌 청소년의 자율적 성장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고품질 벼 재배 '적기 모내기' 현장 지도

완주군이 안정적인 벼 재배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기 모내기 실천을 위한 현장 기술 지도에 나섰다.

완주 지역 주 재배품종은 신동진, 참동진 등 중만생종으로 모내기 적기는 6월 5일까지이며,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모내기를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적기보다 일찍 모내기하면 저온으로 초기 생육이 지연되고 이삭이 달리지 않은 가지(헛가지)가 많아져 통풍의 불량과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게 된다.

반면, 너무 늦게 모내기할 경우 영양 생장 기간이 짧아 충분한 등숙기간을 갖지 못해 푸른쌀(청미)이 많아져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도 적어지게 된다.

모내기 할 때 적정 식재 포기 수는 3.3㎡당 50~70주, 포기당 본 수는 3~5본으로 과도한 밀식을 피해야 한다.

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를 위해 읍·면 상담소를 현장 위주로 운영하고, 6월 중순까지 모내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공직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순창군이 지난 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3년부터 의무화된 대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유미 전문강사가 2시간에 걸쳐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게임을 통한 '틀림과 다름'의 의미 파악을 시작으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이해, 장애 유형별 특성,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진정한 평등의 의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사는 '장애인이 우리 이웃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사회적 장벽의 존재를 설명하고, '장애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수인 비장애인의 입장이 아닌 소수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께 '방방곡곡 행복밥상'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해봉스님)이 지난 30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30명의 어르신을 초청하여 '방방곡곡 행복밥상'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KBS강태원복지재단으로부터 1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어르신 30명을 선정하여 불고기 낙지전골과 한우육회를 대접했다.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기다린 외출과 식사를 반겼고,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 커피나눔작은음악회 성료

장기 입원·치료 학생 위한 직업문화체험 기회 제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장기 입원 및 치료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제한된 학생들에게 직업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커피나눔과 작은음악회를 성료했다.

어린이병원학교(교장 김민선)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긴 기간 동안의 입원 및 치료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제한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

와 보호자, 직원들에게도 휴식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건강장애 학생들의 바리스타 실습을 연계한 커피 나눔 부스에서는 어린이병원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나서 커피와 음료를 제공했다.

또 전주교육대학교 루미에르 양상불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작은음악회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감미로운 현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김영태 기자



김제 청하면 지사협, 유공자 가정 방문해 선물 전달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가정 35세대를 방문해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35가정에 존경의 마음을 담은 선물꾸러미(호두견과·진미채·생강편 등)를 전달하며 희생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 노숙인 실명 막고 삶 회복 도와

긴급 의료지원·사례 관리

정읍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이 실명 위기의 노숙인을 발견하고 긴급 의료지원과 사례 관리를 통해 일상 복귀를 도왔다.

노숙인 A씨는 26년 전 이혼 후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다 시력 문제로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잃으며 거리에서 생활하게 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초래한 상태였고 안압 상승과 폐쇄우각녹내장 증세로 실명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와 동

행해 1차 의료기관에서 긴급 처치를 진행한 뒤, 3차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에서 정밀 검진과 수술을 통해 시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료 지원에 이어 행정적·생활 지원도 뒤따랐다. 시는 A씨의 거주불명 등록 해제와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도왔고, 임시 주거지 알선, 생필품과 식료품 제공, 기초생활수급 신청,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연계하며 그가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갔다.

/정읍=김정인 기자



예수병원 간호국, 제18회 임상연구논문 발표회 성료

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 간호국은 환자 중심 간호 실현 위한 제18회 임상연구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원 예배실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간호 실무 현장에서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임상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한국정신과학연구소 교수이자 파낙토스 통합뇌센터 본부장인 이연희 교수가 '2025 몸과 마음의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태 기자



청소년이 있는 남원과 구로, 문화로 소통하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 간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들을 초청해 남원시 청소년과 함께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나누는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5~6학년 을 대상으로 남원시와 구로구에서 총 30명을 선발해 진행했다.

또한 상호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지역문화를 이

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로구 청소년들은 첫날 남원에 도착해 청소년수련관에서 환영 행사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졌다.

이어 관한루원, 피오리움, 서도역 등 남원의 대표 명소를 방문하여 남원만의 고유한 정취와 전통을 직접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전주여고, 농업 교육 협약 진로 체험

완주군이 전주여자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및 역량 향상을 위한 농업 교육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과정은 총 7회로 △잔류농약 분석 및 토양검정 실습 프로그램 △농식품 가공 및 유통 관련 실무 체험 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추후 △6차 산업 견학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딸기 스마트팜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으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역량을 키우고, 농식품 산업 및 지역 자원과 연계된 직업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세계평화여성연합 익산지부, 익산하늘공원 군경묘지 봉사활동

세계평화여성연합 익산지부(회장 노자와다카코, 이하 여성연합)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일 전북 익산시 익산하늘공원 군경묘지에서 회원 50여명과 함께 묘비단기와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노자와다카코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과거의 희생을 되새기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나라사랑을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작은 봉사라도 꾸준히 이어갈 때 그것이 곧 순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 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립합창단, '코러스 인 시네마' 정기연주회

정읍시는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시립합창단의 제7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영화 OST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 무대로, '코러스 인 시네마(Corus in Cinema)'라는 부제 아래 전 좌석 무료로 운영된다.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권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이취진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은행, 익산 여성청소년에 보건위생용품 꾸러미 전달

익산시는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해 보건위생용품 꾸러미 150개를 기탁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450만 원 상당으로 생리용품 5종과 파우치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청소년 1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물품 전달은 전북은행이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사항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분리수거
실천하기

만보걸기
실천하기

〈一事一言〉



혼란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 새 정부의 과제

김관춘
논설위원

오늘부터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절차상으로는 정권교체지만, 시민들의 감정과 현실 인식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보기엔 너무나 복잡하다. 아직까지 내란의 주모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투표장을 찾고 그를 비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권력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정권교체가 단절이 아닌 연속일 수 있다는 불안을 낳는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법적 다툼과 혐오,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 정부가 평상시의 국정운영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 과업 앞에 서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새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신뢰 회복'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사태는 헌정 질서 유린이자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한 중대 사건이었다. 그 후유증은 단지 정치적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무력감, 분열, 법의 권위 실종 등 복합적인 위기로 확산됐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질서 회복'과 '공정한 책임 추궁'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신속하고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 시작은 내란수괴는 물론 중요임무종사자,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각각의 형평에 맞는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함께, 법치주의의

회복이다. 이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복원이며, 사회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다. 동시에 언론, 교육, 문화 영역에서 퍼진 왜곡과 선동, 혐오 담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혐오와 폭력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정운영

최근의 정치는 마치 거대한 오락 프로그램처럼 소비되어 왔다. 정치인이 스타처럼 소비되고, 시민은 시청자이자 관객으로 밀려났다. 이 구조를 깰 수 없다면, 선거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이벤트화'로 전락할 것이다. 미 일리노이대 커뮤니케이션 학자 네드 오거먼 교수가 지적했듯, 정치가 쇼가 되고 시민이 해피엔딩만을 원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잃는다. 새 정부는 국정 의 우선순위를 시민과 함께 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며 숙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공문장 조성, 지역 단위의 자치 권한 확대, 시민의 입법청원권 강화 등이 실질적인 시민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거대한 개혁 과제 앞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회의 핵심 의제들, 즉 헌법 개정, 차별금지법, 공공재생에너지법, 의료·연금 개혁 등은 거대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정체되

어 있다. 의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풀어낼 정치 의지가 실종된 현실을 시민사회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정치는 여전히 '내란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기본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중단 없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연금 개혁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 위기는 1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삶이다. 당장 손에 보는 집값이 있을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쌓는 정치는 언제나 존재해야 한다.

통합은 '침묵의 강요'가 아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선거 때마다 등장한다. 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통합이 곧 '문제 제기'의 중단이나 '다름에 대한 침묵'을 요구하는 형태로 왜곡되기 일수였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 다른 이해와 입장을 공문장에서 마주하게 하고, 그 차이를 조정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는 불편한 목소리를 억누르기보다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정한 절차, 설명이 가능한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존중—이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다. 어떤 이슈에서든 최소한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시민과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은 아직 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까? 많은 시민들은 지치고 냉소적이며, '또 똑같은 것'이라는 비판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치의 부조리를 꿰뚫고 있고, 변화를 만들어온 시민이다. 내란의 시기에도 광장에서 야광봉을 들고 공동체를 지켜낸 이들이 우리 시민들이다. 문제는 정치가 시민의 기대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데 있다. 다행히도 필요한 정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고, 그 실행을 요구할 준비가 된 시민들도 있다. 남은 것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의 복원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의 진짜 시작은 지금이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선거 당일의 한 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 논쟁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이 혼란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폐쇄된 영역일 수 없다. 우리가 정치에 실망할수록, 그 자리는 더욱 위험한 언설과 세력이 채우게 된다. 참여와 감시는 혼란한 시대의 집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책임이자 권리다. 선거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실이 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준비된 시민과 깨어 있는 정치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북 발전,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전북도민들은 그 누구보다 부푼 기대를 안고 이 정부의 첫걸음을 지켜보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은 이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는 그에 답하듯 전북의 발전을 위한 전례 없는 규모의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제 그 약속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될 차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북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낙후된 전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도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특히 그는 7대 광역공약과 14개 시·군별 76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지역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행보였으며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다. '2036 전주하계를 립픽 유지' 공약은 전북을 K-컬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초광역권 교통망을 연계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전북의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공약 또한 전북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한다.

AI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등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오랜 시간 개발 정체와 정책 미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곳이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책무가 있다.

전북은 그간 '3중 소외'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중앙정부 정책에서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많았다. 행정적·정책적 소외는 전북의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게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전북을 국정 의 동반자로 세워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공공의대 신설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대 과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전북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재명 정부는 이 흐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전북이 자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도민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지지의 대가로 예산을 원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갈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했던 말처럼 '말보다 실천'으로 이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 전북은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출발점에 선 이재명 정부가 전북과 함께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길 빈 5백만 도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문화재열전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적건조물, 불교, 당우
-지정일 - 1986년 9월 8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석포리)

▲오늘의시

희망을 위하여 / 박재구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팔을 놓지 않으리

너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두터운 네 등 위에 내려앉는
겨울날의 송이눈처럼
너를 포근하게
감싸 껴안을 수 있다면

네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조차 더욱
편안하여 어머니의 무릎처럼
고요하게 나를 누일 수 있다면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으리
두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세상의 슬픔을 보리

마음의 길이 굽어져
오늘은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게로 가는
불빛 잃은 발걸음들이
어두워진 들판을 이리의 목소리로
울부짖을지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손을 풀지 않으리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찌꾸', '낙타폴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6월 4일 수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산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변하지 않는 진실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고창 만들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는 위기 가구를 살피고 지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군민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살펴봤다.

민관협력의 구심점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건강·정서 돌봄 위한 효자형 특화사업 추진
명절·경로당 위문사업, 고창형 긴급지원 사업
떡케이크 무료 지원·나의 청춘 프로필 제작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심의하고 민간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고창군의 사회보장 발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업으로 딱집의 후원을 통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 안부확인하고 함께 독거 어르신들의 하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의 청춘 프로필 사업

따뜻한 봄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을 남기기 위해 사진과 나들이로 계획하여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회원들의 사진촬영 재능 기부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얼굴 화장 및 헤어스타일을 단장 등의 재능 기부로 관내 취약·소외계층 200여명의 대상에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제작하여 어버이 날 선물로 전달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대상으로 6월 중 사진 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위원 역량강화 교육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세계보물창고, 복지도자인도 우리가 한다”라는 주제로 심덕섭 군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교육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일간 진행했다.

특히 사례중심 읍·면 조직화방법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정립 등을 교육하였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공유와 의견 수렴의 장이 되어 위원들과 소통하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반기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화합과 소통 그리고 힐링의 시간을 통해 역량 강화 및 타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청취하는 기회를 갖고자 선진지 견학을 예정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좀 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도시, 따뜻한 도시가 되어 가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협의체 위원들의 활약 덕분”이라며 “지시협 가슴속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 고창군은 앞으로도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동시에 농어촌, 아이와 어르신, 다문화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백종규 기자

